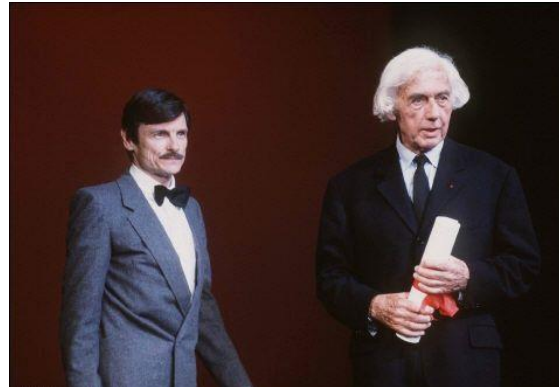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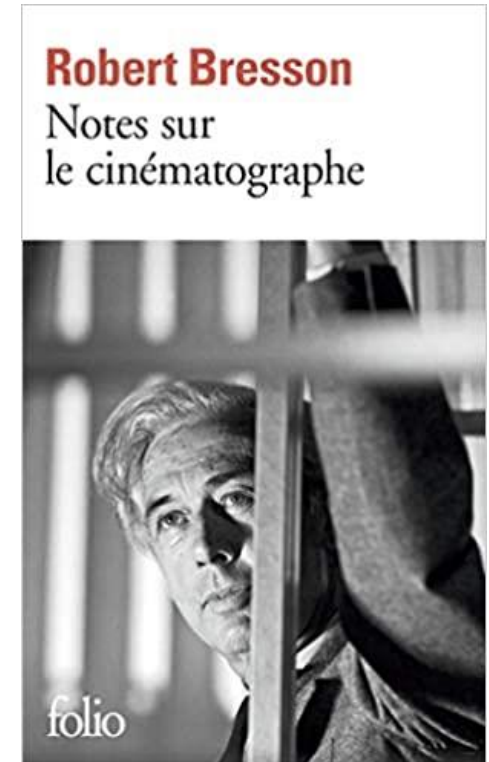


<영화계 聖人 로베르 브레송_Pickpocket>

(도둑의 분위기 불안과 불행느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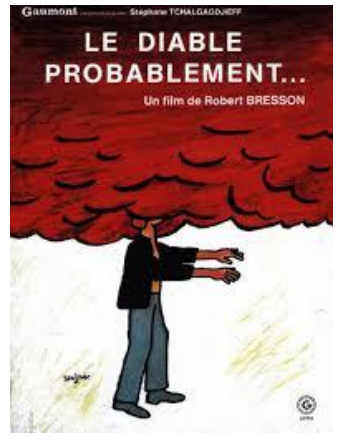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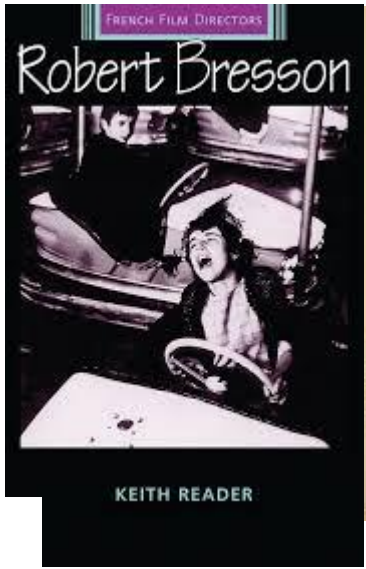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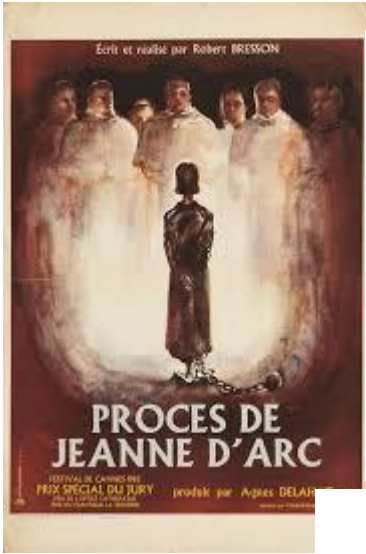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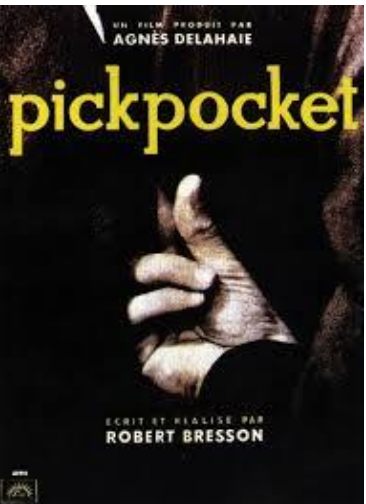


Cannes 1983, <노스탈지아>, <돈>(톨스토이 <위조 쿠폰>)
Grand Prix du cinéma de création



songtaihyo.com

"모차르트가 독일 음악이고, 도스토예프스키가 러시아 문학이듯, 브레송은 프랑스 영화다: 영화-세상Film-World"-고다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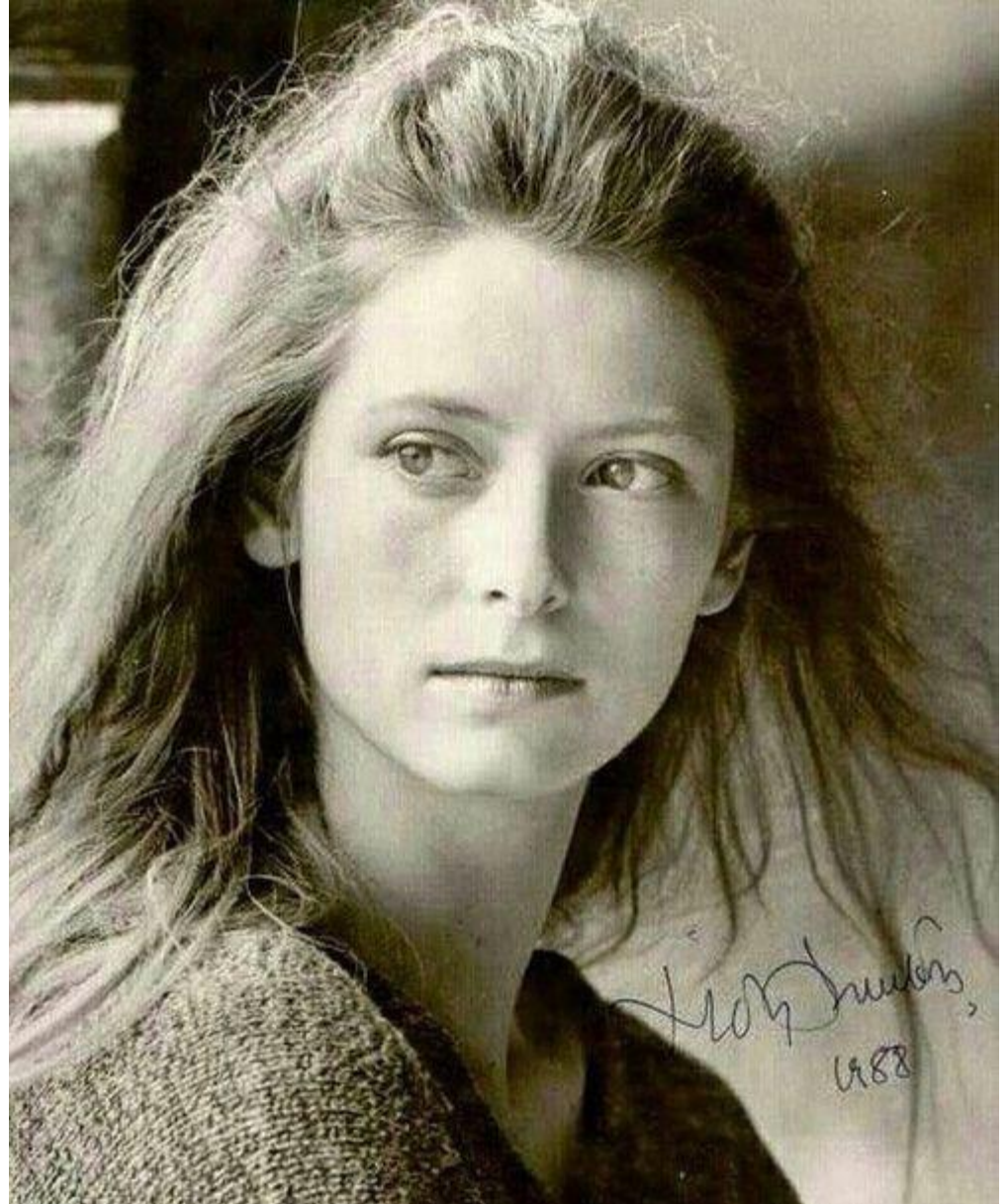


보들레르, 베르나노스, 생텍스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이해하지 말고 느껴라

틸다 스윈튼

“배우가 되는데 영감을 준 유일한 작품은 로베르 브레송 감독의 <당나귀 발타자르>다. 당나귀가 등장하는 최고의 퍼포먼스다” - 2011년 골든글로브 시상식



《봉인된 시간》(1985)

“진정 브레송은 영화가 시, 문학, 회화나 음악 같은 고전 예술들 원칙과 동등한 수준에 있는 예술 원칙이라는 것을 보여준 예술가가 가운데 한 명이다.”

“로셀리니, 콕토, 르누아르, 비고? 이런 위인들은 다들 어디로 가버렸나? 시청 넘치는 영화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도도, 로도, 역시 돈이 문제구나. 그리고 두려움... 펠리니도 두려운데, 떨고 있고... 오직 브레송만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브레송은 천재다. 그러나 그가 최고 감독의 위치에 서 있다면 그의 바로 뒤에 있는 감독은 대략 10등 정도의 순위에서 해당하는 곳에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등과 2등은 이의 가경을 살로 얻은 거다. 트레송에게 1등은 필요 없을 거 같으면 더더기가 처혀 없다. 그렇다. 문 없는 인간은 결코 영화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결코!”

《봉인된 시간》(1985)

“영화와 문학은 이제까지 생산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하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예술 사이에는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있다. 영화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문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분야와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식으로 점점 독립된 예술 분야가 될 것이다.”

“가장 주된 차이점은 문학이 언어의 도움으로 세계를 묘사하는 반면, 영화는 아무 언어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영화는 직접적이다. 영화는 우리들 스스로를 눈앞에 제시하는 것이다.”

映畵의 聖人

“진실된 것은 모방할 수 없고, 거짓된 것은 변형시킬 수 없다.”

“말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생각이 우리를 말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수수께끼일 따름인 곳에서 모두들 해답을 찾고 싶어 한다.” - 파스칼

“창조한다는 것은 인물들과 사물들을 변형시키거나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창조란, ‘있는 그대로’ 있는 인물들 및 사물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다.”

“예전에는 미를 종교화하고 주제를 승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이 같은 고귀한 염원들이 있다. 그것은 물질과 寫實主義로부터 탈피하는 것이며, 자연에 대한 통속적 모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승화 작업은 기술에 치중하고 있으니... 시네마는 두 개의 의자에 걸터앉은 꼴이다. 시네마는 (사진)기술도, (그대로의 모습처럼 베껴내는) 배우들도 승화시키지 못한다. 시네마는 연극적이면서도 관례적인 까닭에 전적으로 사실적이지도 않으며, 또한 사실적인 까닭에 전적으로 연극적이지도 관례적이지도 않다.”

“우발적인 것에 항시적인 것, 영원한 것이 있다”

“네가 길을 잃고 있음을 알려줄 아무것도 없는, 너무
거창하거나 막연한 주제들을 피하라”

시네마토티그래프와 시네마

“시네마토티그래프는 움직이는 이미지들과 소리들로 쓰는 글쓰기이다.”

“시네마토티그래프 :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느끼기.”

“두 부류의 영화 : 연극의 수단들(배우들, 연출 등)을 사용하고 '재생'을 위해 카메라를 사용하는 영화(시네마). 시네마토티그래프만의 수단들을 사용하고 '창조'를 위해 카메라를 사용하는 영화(시네마토티그래프)”

너에게 시네마토티그래프에 관한 고결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를 훌륭한 영화라 부르도록 하여라

스타 시스템

“시네마의 과오. 무한한 가능성과 결과 간의 우스꽝스러운 불균형 즉 '스타 시스템'.”

“시네마의 영화는 이지적으로 통제를 받아 더 멀리 나아가지 못한다.”

“두 가지 예술 장르를 결합하며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이것 아니면 저것.”

이 미 지

“한 이미지는, 한 색이 다른 색을 만날 때 그러한 것처럼, 다른 이미지들을 만나면서 변화해야 한다. 푸른색이 녹색, 곁에, 노란색, 붉은색 곁에 놓일 때 처음의 푸른색은 아니다. 변화 없이는 예술도 없다.”

“보기 좋은 이미지들만 모아 놓으면 역겨울 수 있다.

하나의 이미지의 절대적 가치란 없다. 이미지와 소리는 네가 사용하는 바에 따라서만 그 가치와 힘을 지닐 것이다.”

“멋진 사진, 멋진 이미지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이미지, 필수불가결한 사진.”

“누드에서, 아름답지 않은 모든 것은 외설적이다.”

소리

“소리로 이미지를 대신할 수 있을 때에는 이미지를 지워버리거나 무력화시킬 것. 소리는 한층 안으로 들어오고, 시선은 한층 밖으로 나아간다.”

“소리가 이미지를 도우려 해서도, 이미지가 소리를 도우려 해서도 안 된다.”

음악과 영화

“음악. 음악은 너의 영화를 네 영화의 생명으로부터 분리시킨다(음악에의 도취). 음악은 술이나 마약처럼, 실재를 변경시키고, 심지어 파괴시키는 강력한 요인이다”. * 물론 화면에 등장한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은 제외하고서.

“얼마나 많은 필름들이 음악에 의해 얼버무려지는가! 사람들은 필름을 음악으로 가득 채운다. 사람들은 그 이미지들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끔 방해한다.”

“가난함에 관하여 : 몇 편의 자신의 협주곡들(KV 413, 414, 415)에 관한 모짜르트의 편지. “이 곡들은 지나치게 어려운 곡과 지나치게 쉬운 곡 정중앙에 있다. 이 곡들은 찬란하지만.... 그러나 무언가 가난함을 아쉬워하게 한다.”

관객

“너의 관객은 독자도, 연극 관객도, 전시회 관람객도, 연주회의 청중도 아니다. 너는 문학적, 연극적, 회화적, 음악적 취향 그 어떤 것도 충족 시켜 줄 필요는 없다.”

“관객이 이해하려 들기 전에 느끼려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필름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설명해 준다!”

감독

“연출자 혹은 ‘감독’. 누군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끄는 것이 문제이다.”

“너의 모델들을 너의 촬영과 너의 녹음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그들의 독특한 점)을 편하게 해줄 것.”

“너의 영화는 눈요깃감이 아니다. 너의 영화는 눈속으로 파고들어 완전히 눈 속에 흡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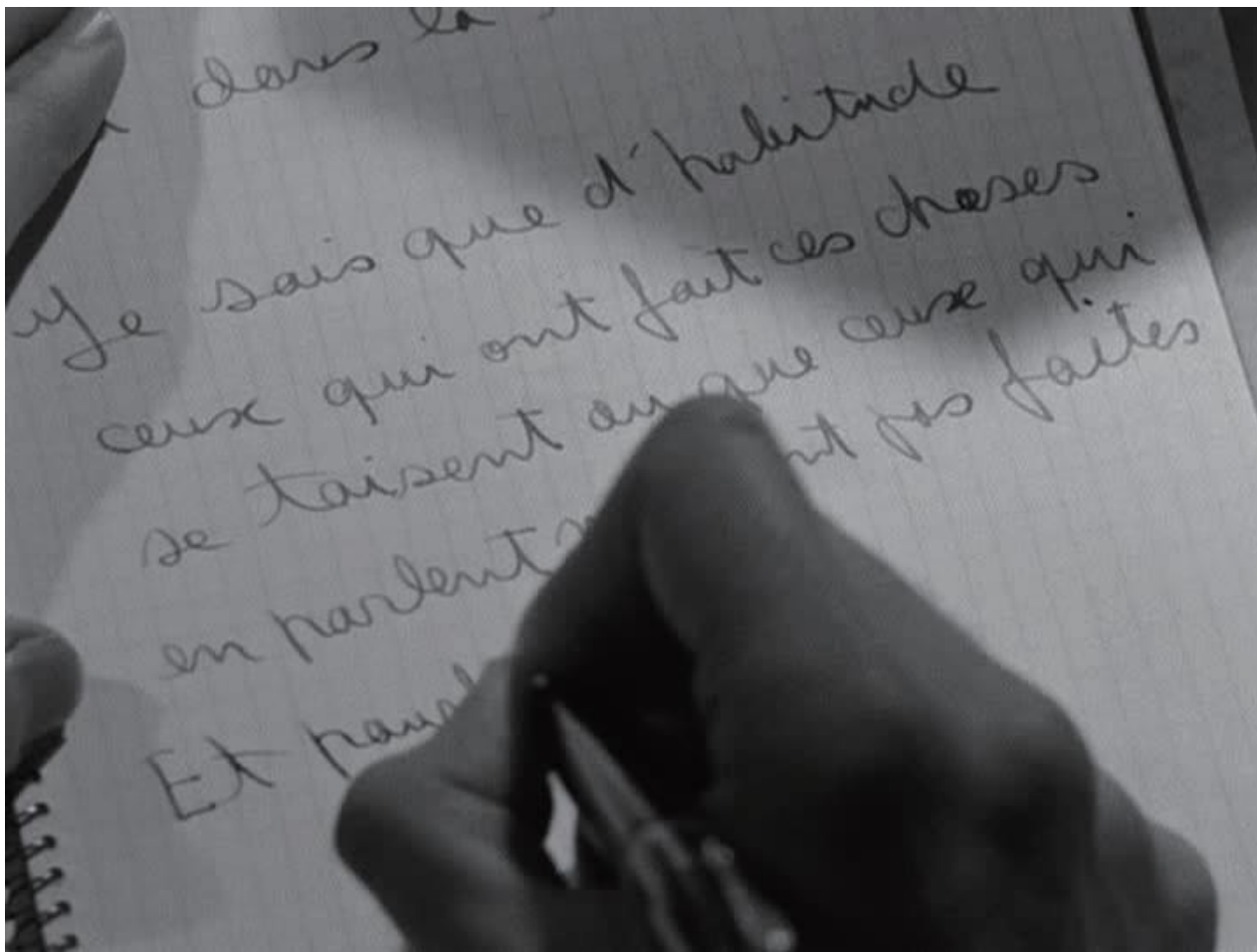
단순성의 미학

“궁극적으로 가장 생명력을 지니는 것은 가장 평범하고 또 가장 빛나지 않는 부분들”

“너무 단순하다고 내가 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며 파고들어야 하는 것이다. 단순한 것들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불신들.”

“감동적인 이미지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지들을 생생하면서도 감동적 이게 하는 이미지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감동을 줄 것.”

“행동하는 자 침묵하고, 말하는 자 행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말과 행동 둘 다 해냈다”





“그대에 이르기 위해 나는 이 얼마나 기
이한 길을 걸어왔던가?”



서양 음악계 가계도

장바티스트 륄리 요한 카스퍼 페르디난드 피셔 장필립 라모 요한 세바스찬 바흐

(1632-1687) (1656-1746) (1683-1764) (1685-1750)

- 바로크 음악 중기인 1650~1700년, 이탈리아 출신, 댄서, 기타, 바이올린 연주자, 발레 작곡, (몰리에르)극음악, 프랑스 오페라 정립, 코메디-발레 개발
- 바흐의 음악=프랑스+이탈리아 음악<루이 14세의 낭트 칙령> 프랑스 위그노 예술가 독일로 이주, 튀링엔(Thüringen)은 그 중심지, 프랑크족 거점지.
- 장-필립 라모가 존경한(오마쥬) 롤 모델: 프랑스 음악계의 두 기둥
- 태양왕(루이 14세) 별명=밤의 발레(Ballet de la Nuit)에서 유래
- '파사칼리아(인도에서 스페인으로 전래)'와 '샤콘느'(<아르미드>, <플라톤> 등의 춤곡). Johann Casper Ferdinand Fischer